



# 지역 소식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2보좌  
매튜 오 리차드슨 형제

## 왕국의 교리를

# 서로 가르치라



본부 청년 회장단 2보좌  
랜들 엘 리드 형제

**교**회 본부 직원인 청년 회장단 2보좌인 랜들 엘 리드 형제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2보좌인 매튜 오 리차드슨 형제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전국의 각 선교부 지역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본부 직원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성도와 직원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더 좋은 지도자와 교사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작년 7월, 본부 청년 회장과 초등학교 회장단 1보좌가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모임은 포커싱 그룹 모임, 보조조직 훈련 모임, 특별 모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포커싱 그룹 모임, 경청하고 토론하다

이 모임에서 본부 직원들은 스테이크 및 와드의 보조조직 회장단 및 교사들과 모여 머리를 맞대고 보조조직의 부름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도전 과제와 이들을 지도하는 역원들이 부름을 수행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리차드슨 형제는 8월 29일과 31일에 대전 선화 와드와 서울 영등포 와드를 각각 방문하여, 새로운 청소년 교과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의 효과와 쟁점들을 다루었다. 새로운 교과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원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리차드슨 형제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다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느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그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토론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원 개인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들과 친구가 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청년 역원이라는 한 자매는, 청소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친구가 됨으로써 공과 외의 시간에도 점차 복음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졌던 경험을 나누며 그를 응원했다. 여기에 덧붙여 리차드슨 형제는, 세계 여러 지역의 공과에 참석하면서 관찰한 좋은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권고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참석자들 간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이끌었다.

리드 형제도 29일과 31일에 부산 수정 와드와 서울 신당 와드를 각각 방문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 역원들의 고충과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발표할 시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

사진: 포커싱 그룹 모임에서 토의하는 회원들과 리차드슨 형제





사진, 위에서 아래로:  
 훈련 모임에서 존경하는 교사에 대해 발표하는 회원, 합창단, 청남에게 캐스트 퍼즐을 가르치며 이를 비유하여 청소년 지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리드 형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일화에 나오는 매직 넘버(magic number)를 통해 우선순위와 균형의 원리를 가르치는 리차드슨 형제

답을 직접 말하지 않고, 성도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강조했다. 초등학교와 주일학교 등 몇몇 보조조직과 경전 안내서, 가정의 밤 등이 성도들의 영감 어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흥미로운 교회 역사를 소개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도 교회에서 개척자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리드 형제의 지휘에 따라, 역원들은 소그룹을 만들고 건설적인 토론을 주고받았다. 의견을 내고자 하는 역원들의 열정이 뜨거워서, 그룹 토론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세미나와 상호 향상 모임의 참여 독려 방법, 의로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 정하기 등을 돕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제시했다.

리드 형제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갑작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내고 공유한다면,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훈련 모임, 간증을 나누고 결심하다.

포커싱 모임 직후 이어진 보조조직 훈련 모임에서는 청남 청녀를 포함하여 역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다. 훈련 모임에서는 종종 청중의 발표가 요청되었다.

대전에 방문한 리차드슨 형제는 자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 교사에 대해 생각해보길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르침을 주었던 교사와 지도자를 생각하며 자신도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키웠다.

교사의 가르침이 학생의 생각과 마음에 전달되는 데에는(교리와 성약 8:2 참조) 교사의 준비와 더불어 학생의 관

심과 실천이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리드 형제는, 참석한 귀환 선 교사 중 몇몇 사람에게 간증할 것을 부탁했다. 31년 전에 선교 사업을 했다는 한 자매는 신당 와드 연단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시련이 있었을 때 선교 사업의 기억이 자신을 도왔다는 것과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선교 사업 시절을 회상하고, 어떤 청년은 자신의 시련을 떠올렸다. 선교 사업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계속해서 리드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도록 청소년이 지금 준비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봉사를 성스럽게 여기길 권고했다.

### 특별 모임, 가족을 우선순위 맨 앞에 두십시오

본부 역원들은 부산과 대전에서 포커싱 그룹 모임과 보조조직 훈련 모임 직후 계속해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모임을 열었다. 리차드슨 형제와 리드 형제는 곧 9월 1일 일요일 저녁에 영등포 와드에서 특별 모임을 열고, 서울과 경인 지역의 모든 성도와 구도자를 초대했다.

“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리드 형제는 많은 역할 중에서도 가족의 역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강한 가족 문화와 전통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강력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첫째, 가족들과 함께 창의적인 시간을 보낼 것, 둘째, 교회에

서 완전히 활동하고 헌신할 것, 셋째, 부부 관계를 포함하여 가족의 관계를 우선순위 맨 앞에 놓을 것, 넷째, 가족 고유의 기념일과 행사 같은 가족 전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리차드슨 형제는 이처럼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 직장,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때로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안에서 보십니다.”

마지막 모임이 끝난 후에도, 본부 역원들은 많은 회원과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대화했다. 그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더 붙어 조언과 희망을 주었다.

일정 동안 진행된 모든 모임은 그룹 토론과 발표 등 청중들의 참여가 권장되었다. 연사들은 말할 기회를 나누고 귀를 기울였으며,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이 경험을 통해, 주일학교 및 정원회 반원들과 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몸소 배울 수 있었다.

이 모임들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교리와 성약 88:77) 소통의 장이었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조언과 배움의 장이었다. 또한, 참석자 개인들이 깨달음을 얻는 계시의 순간이기도 했다. ■

사진, 위에서 아래로:  
리드 형제의 진행에 따라 옆 사람과  
토론하는 청중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동전을 붙인  
카드를 선물하며 선교사 준비를  
독려하는 리드 형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찍는  
리차드슨 형제



## 하늘과 땅을 묶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 만수 와드 가족 역사 사업

7월 20일을  
‘만수 와드  
가족 역사 사업의 날’로  
정하다.

**폭** 폭 찌는 더위를 피해 너도나도 피서지로 향하던 지난 여름,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청소년과 성인 회원들은 조상의 역사를 탐구하며 봉사의 기쁨을 누렸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차 대회와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을 통해 구원 사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듣자, 만수 와드의 회원들은 와드 단위의 가족 역사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첫째, 중요성 느끼기

만수 와드 감독단은 작년 가족 역사 지역 고문인 전병기 형제를 만수 와드에 초청하였다. 와드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움으로써,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전 형제는 흔쾌히 시간을 내어 방문하였고, 가족 역사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다. 그의 교육과



사진: 조상의 정보를 패밀리 서치에 입력하는 만수 와드 회원들

간증을 통해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만수 와드 회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 둘째, 실무 교육

7월 20일, 바로 만수 와드 가족 역사 사업의 날로 지정된 날짜이다. 7월 20일에 있었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일정은, 바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실무 교육이었다. 이 모임은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성인들이 함께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나,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족보를 읽는 것을 어려워했고, 인터넷과 전자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저마다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 역사 사업의 경험이 있던 몇몇 와드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실무 교육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 족보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패밀리서치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도록 와드 회원들을 도왔다. 또한, 같은 웹사이트에서 조상을 검색하고, 자신의 조상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실무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 셋째, 대리 의식 준비

첫 모임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이 모임에서 교육을 받은 회원들은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봉사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 안식일 오후에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성인 회원으로서 이 모임에 참여한 강혜경 자매는 친척들로부터 조상들에 대한 자료를 구했다. 조상들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행복한 경험을 했다.

“처음에 친척분들께 그분들의 조부모와 부모의 자료를 주십사 요청했을 때, 그분들은 자료 주시는 것을 꺼리셨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자, 자료를 흔쾌히 내어주셨죠. 오히려 조상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뻐어요.”

### 넷째, 성전 대리 의식

8월 14일, 만수 와드 회원들은 성전으로 갔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청소년 7명과 성인 34명이 참여하였다. 그동안 입력한 조상들의 이름을 출력하였고 이 시간 동안 602명의 조상에게 대리 침례를 줄 수 있었다. 성전 관

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 번의 대리 침례 의식에서 602명의 조상에게 대리 침례를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 역사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만수 와드 청소년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패밀리서치에 조상의 기록을 입력하는 작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가족의 중요성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알찬 경험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중 한 명인 김호영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침례를 집행해 주셔서 더 의미있었고, 기뻐합니다. 조상에 대한 기록도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만수 와드 회원들은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그 긴박함을 강하게 느꼈으며, 구원 사업을 서두르라는 선지자들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수 와드 가족 역사 사업의 날뿐 아니라, 이런 모임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회원들 사이에 형성되었고, 이러한 강한 동기부여에 따라, 회원들은 분기별로 대리 침례 의식에 참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만수 와드의 김우식 감독의 말이다.

“가족 역사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혼자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함께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힘이 나지요.” ■



## 📖 한국 교회 역사 기록

### 한민족과 교회의 만남

# 옛날 옛적 성도의 벗(1965년)이 없던 시절에...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간 주목받지 못한 기록물이 있다면, 선교부가 발간한 여러 간행물들일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955년 일본 동경에 선교부 사무실을 두고 조직된 북극동 선교부는 보조조직에 필요한 여러 교재와 함께, 전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구독 범위를 선교사에게만 한정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The Missionary Messenger”라는 공식 월간 잡지를 발간하여 일본 돈으로 권당 30엔, 1년치 정기 구독은 360엔(당시 미화 1달러), 해외 1년 구독은 540엔(미화 1.5달러)에 판매하였다.

1958년 간행물을 살펴보면, 본 잡지의 편집장은 폴 시 앤드루스 선교부 회장, 부편집장은 윌리엄 오 휘태커 장로였으며, 통상 30쪽 분량의 이 잡지는 고정 칼럼으로 1.“영적인 가르침 (Inspirational)” 2.“선교부 소식(Mission News)” 3.“보고(Report)”란을 두었고, 필요에 따른 추가 항목으로, “선교부 행정지침(Instructions from the Mission Office)”등을 포함하였는데, 선교사들이 지켜야 할 지침과 계명은 물론 선교부 지역 내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여러 정보들을 맛깔스럽게 펼치고 있다.

특히 2월호에는, 표지모델로 나온 앤드루스 당시 북극동 선교부 회장 가족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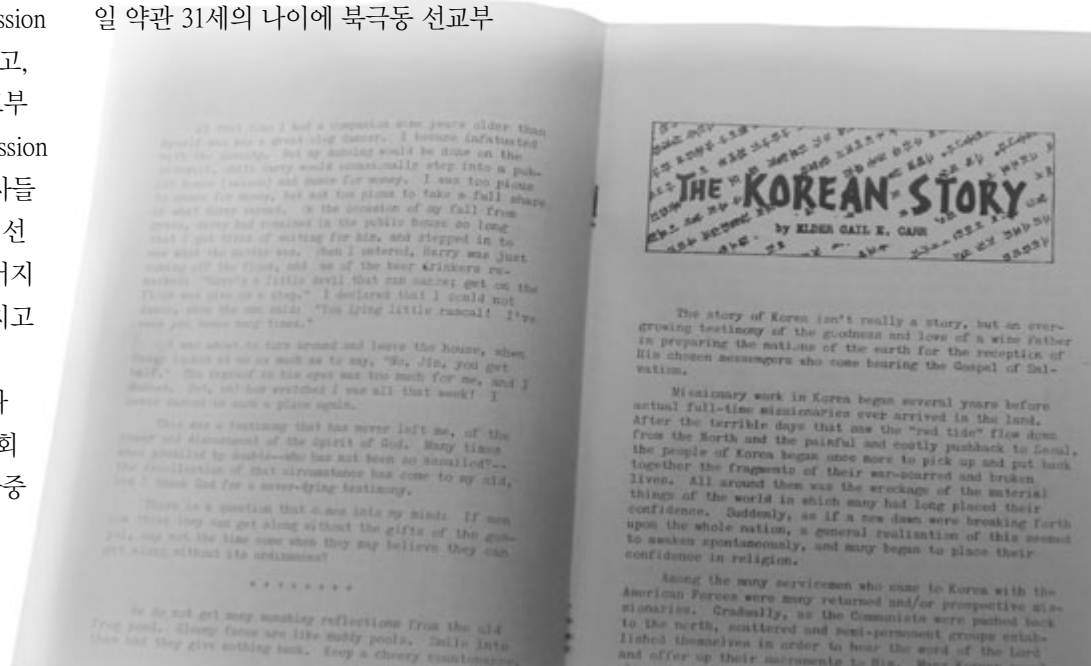
에 북극동 선교부에서 독립하여 한국 선교부가 출범할 때 초대 선교부 회장(1962)으로 부름받게 되는 게일 이카 장로의 “한국의 역사(The Korean History)” 기사가 눈에 띈다.

기사를 보면, 폴 시 앤드루스(Paul Charles Andrus) 선교부 회장은 1924년 10월 5일생으로 솔트레이크에서 태어나 1952년 7월 5일 프랜시스 파커와 하와이 호놀룰루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58년 당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와 유타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1943년에서 1946년까지 공군 장교로 군 복무하였으며, 중위로 제대하였다. 이후 세미나리 교사, 아론 신권 서기, 여러 주일학교 교사의 부름을 수행하던 중, 1948년에서 1951년까지 일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이른다. 귀환 후 호놀룰루에서 보험 및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가, 1955년 11월 1일 약관 31세의 나이에 북극동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지 4년,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앤드루스 회장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초대 북극동 선교부 회장이 아니었다. 일본 선교부에서 발전하여 한국과 오키나와를 아우르는 북극동 선교부가 창설된 것은 그가 성별받은 때보다 3개월여 전인 1955년 7월 28일의 일이었으며, 조셉 필딩 스미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첫 선교부 회장으로 성별한 사람은 원래 1952년부터 일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해 오던 힐튼 에이 로버트슨(Hilton A. Robertson)이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그가 1955년 11월에 해임되게 되면서, 그를 대신하여 앤드루스 회장이 전격 부름받아 함께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아내와 함께 1962년까지 봉사하게 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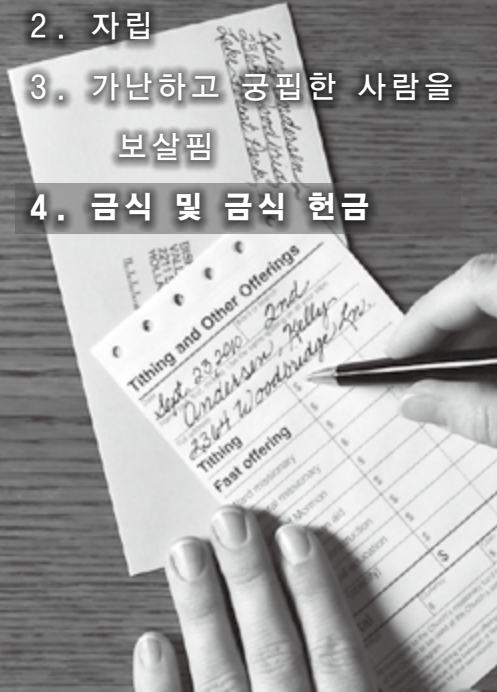
# 금식 및 금식 헌금

## FASTING AND FAST OFFERINGS

**올** 한 해에 걸쳐 우리는 비상사태 대비, 자립,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핌에 관한 교리와 그 실제적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현세적 자립을 입증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금식이라는 방법이다.

### 2013년 지역 복지 강조사항

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2. 자립
3.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핌
4. 금식 및 금식 헌금



주님께서서는 금식을 “홍약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사야 58:6)이라고 설명하셨다.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주께서는 이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다. 그분은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뺀 자를 보면 입히

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사야 58:7)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 이 두 절을 살펴보면, 금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축복을 구하도록 권면하는 매우 능동적인 계명임을 알 수 있다.

금식의 법과 금식일을 준수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지침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 “올바른 금식일 준수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연속 두 끼 동안 음식과 음료를 삼가고,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며,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돕기 위해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1.1.17, 금식일) 이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사람과 그 수혜자가 될 사람 모두에게 더욱 커다란 영적·현세적 힘과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3단계로 이루어진 간단한 공식이다. 금식의 법은 완벽한 복지 계획이다. 이 계획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두 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하루 세 끼에 익숙한 사람이든 아니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어려운 사람이든, 누구나 주님께 기도하여 목적을 갖고 다음 두 끼 식사를 거르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축복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금식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고 양육 받을 기회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남긴 흔적을 찬찬히 생각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되새길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본다. 또한, 성신이 우리를 지지하고 북돋아 주며 강화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복음과 물몬경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원한다면 이러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대해 진실 어린 간증을 짧게 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식하지 않았다면 먹었을 음식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을 감독님께 드릴 것을 요청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 헌금을 지불하는 데에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셈이다. 어차피 음식을 사는데 소비했을 돈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능력이 닿는다면 “교회 회원들이 금식 헌금이나 헌물을 두 배로 낸다면, 교회에서 느끼는 영성도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Welfare Agriculture Meeting, 3 April, 1971)라고 약속하셨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저는 우리가 두 끼 식사를 금식하고 저축한 양보다 더 후하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능력보다 열 배 더 후하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General Conference Report, Apr. 1974)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감독은 이러한 헌금을 와드 내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고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십일조가 신앙을 기초로 한 계명이라면, 금식 헌금은 연민과 봉사의 계명이다.

감독은 자신의 교회에 속하는 회원

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식 현금 지원금의 사용을 총괄한다. 그는 성신의 인도에 따라 질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 분별한다. 감독은 다른 여러 자원과 함께 이 금식 현금을 활용한다. 이러한 지원은 모든 교회 복지 지원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자립하기까지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다. 여

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조기에 감독님을 찾아간다. 그러면 감독님은 조언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엘 톰 페리 장로는 “금식의 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금식한 것에 해당하는 기금을 냄으로써 궁핍한 사람들도

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금식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금식은 개인적으로 겸손함과 영성을 키워줍니다.”(“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라고 말씀했다. 우리 모두가 금식을 실천하고 금식 현금에 참여하여, 지금 그리고 영원히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도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 한국 성도의 소리

### 태백 지부에서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장위 와드 이유영 형제

나는 서울 선교부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던 시절, 태백 지부를 종종 방문하며 마음에 큰 연민을 느꼈다. 적은 성도들이 지부를 꾸러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교부 회장 보좌의 부름에서 해임되자마자, 나와 내 아내 임정희 자매는 무작정 태백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무언가 도울 것을 찾기 위해서다. 2012년 10월,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축복들을 받았다.

1년간 봉사하며 얻은 첫 번째 축복은 ‘연속적인 영적 체험’이다. 작년 12월의 어느 날, 태백의 어느 겨울처럼 눈이 높고 쌓이고 바람이 불던 밤이었다. 한밤

중에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고, 교회에 꼭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바람을 뚫으며 태백 지부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것은 홍수가 난 듯한 한바탕의 물난리였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수도관이 터져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던 것이다. 나는 곧장 도움을 청하여 물을 끌어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새벽에 나를 깨우고 이유 없이 지부로 향했던 것은 영의 인도였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다. 나는 교회 회원들과 다른 모든 이의 마음이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모로나이사 8:26) 바라며, 태백 지부 회원들과 함

께 인도주의적 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지역주민에 쌀을 배포하는 등 이웃을 도울 기회를 만들었다. 그것은 지부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되었고, 선교 사업의 기회도 되었다.

이제는 다시 서울로 이사 와서 매주 태백 지부 회원들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언제까지고 태백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느꼈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는 청소년,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대상 가족 역사 사업 소개 및 식사 모임, 태백 지부 회원 및 방문자들과 함께한  
이유영 형제(맨 왼쪽)



## 가족으로 영원히

마산 와드 객태수 형제

나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이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궁금함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께서 내가 신체적인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길 바라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또 다른 교리적인 의문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교회를 옮기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한 뒤 우연히 마주친 선교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되었고, 영어회화반에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 선교사 두 분 권유에 따라 토론에 참여했고, 곧 선교사님들의 천사 같은 마음씨와 친절함을 느꼈다. 특히, 그분들은 나를 위해 항상 잘 준비된 공과를 들려주셨다. 나는 복음 토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교리적인 질문들도 하기 시작했다. 회복된 복음을 통해 그동안의 의문들이 잘 해결되었고, 특히 조상을 비롯하여 가족 관계가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난 곧 침례를 받았다.

그 후, 내가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동안 나와 각별한 사이였던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나는 귀국하자마자 삼촌의 산소에서 눈물을 쏟으며 꼭 삼촌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렸다. “영의 세계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꼭 받아들이시고요, 우린 영원히 가족으로 지낼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을 당시 영원한 가족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면, 지금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와드에서 선교 책임자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작은 도구라도 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7명/장로 9명



**길수려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김은유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김인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부산 선교부



**김태욱 장로**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대전 선교부



**김태호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문세원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박병선 장로**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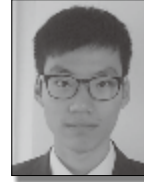
**박주은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부산 선교부



**송동석 장로**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원혁준 장로**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대전 선교부



**이다슬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대전 선교부



**이미지 자매**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이미지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애리조나  
스카츠데일 선교부



**이성관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전부해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선교부



**조근용 장로**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부산 선교부